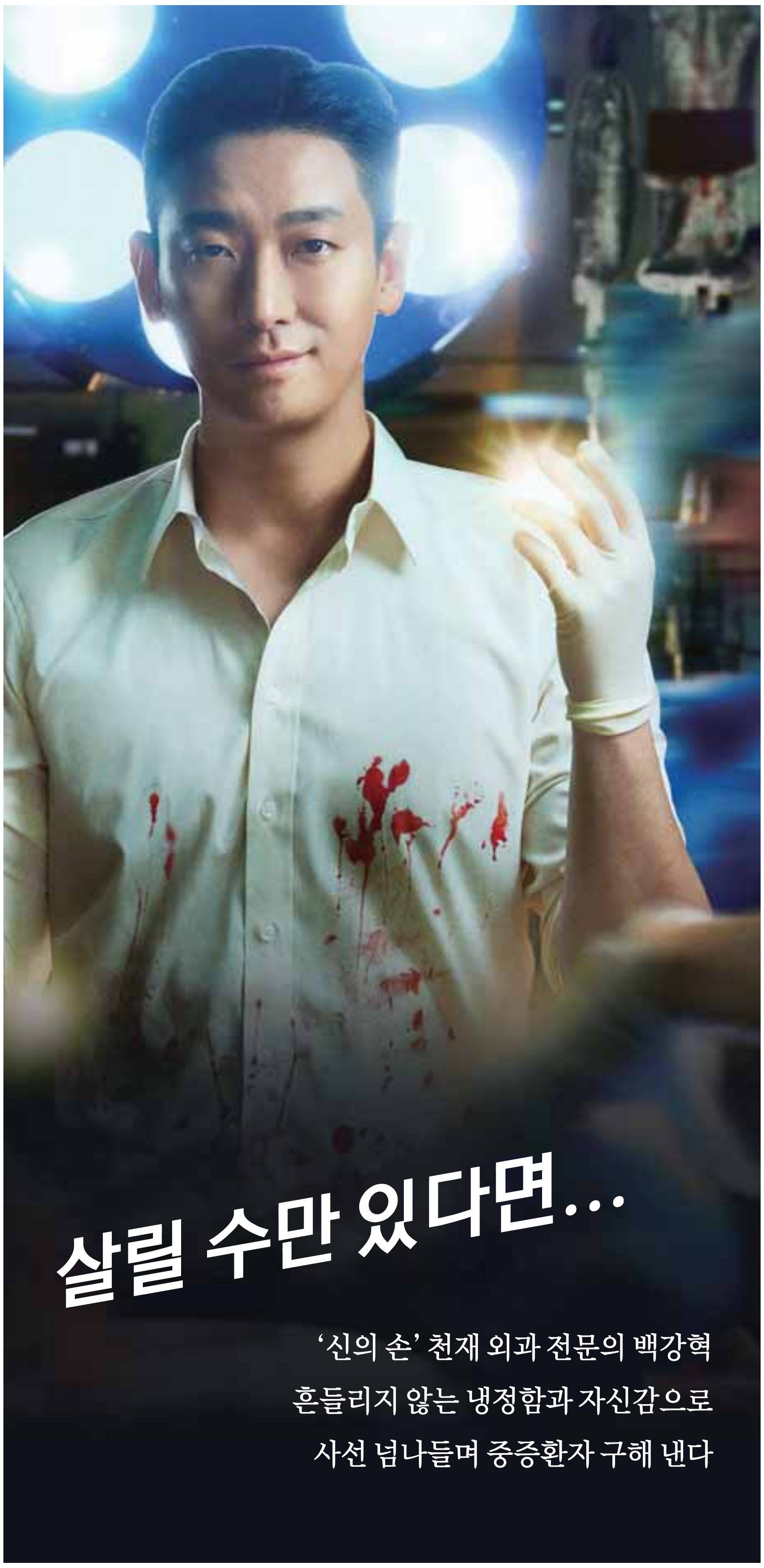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24일 공개

이국종 원장 '골든아워' 영감 받아 국내 드라마서 다루지 않던 소재 액션·휴먼 스토리 히어로물 제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치명적 부상 위험성에 언제나 노출돼 있다. 자연스럽게 군에서는 외상의 개념 정립과 함께 응급처치, 수술이 발전해 왔다.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는 중증외상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온 데는 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 분야를 이끄는 대표적 인물로는 국내 외상외과 최고 전문의로 손꼽히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들 수 있다. 그는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돼 총상을 입은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목숨을 구했고, 2017년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던 중 무려 5발의 총상을 입은 북한군 병사를 기적적으로 살려 냈다.

오는 24일 공개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는 국내 드라마에서는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은 소재인 중증외상치료 세계를 작품에 녹여 냈다.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 백강혁(주지훈 분)이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에 부임하면서 활약하는 모습은 누가 뭐래도 이국종 원장이 생각난다. 실제로 동명의 웹소설을 쓴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낙준(필명 한산이가) 작가가 이 원장의 책 『골든아워』를 읽고 영감을 받은 작품이 원작인 만큼, 이 원장을 떠올리는 건 무리가 없을 듯싶다.

작품 속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천재 외과의사 '백강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전쟁터도 마다하지 않는 행보를 보여 그의 과거에 관한 궁금증을 높인다.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채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과 자신감은 '신의 손'인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주인공 백강혁 역을 맡은 주지훈은 "백강혁은 실력과 지성을 모두 겸비한 거침없는 인물이다. 불의를 깨부숴 가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고, 속이 시원했다. 일종의 히어로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백강혁의 선택을 받아 중증외상팀으로 소환된 '양재원' 역은 최근 '옥씨부인전'으로 주목받는 배우 추영우가 열연을 펼친다. '독고다이' 백강혁의 첫 제자이자 노예 1호 양재원은 엘리트 꽃길만 걷다가 백강혁을 따라 사선을 넘나들며 중증환자들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면서 성장한다.

연출을 맡은 이도윤 감독은 "'중증외상센터'는 단순한 메디컬 드라마가 아니라 히어로물이자 액션 활극이며, 휴먼 드라마이기도 한 코미디"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성수 기자

◀ 오는 2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포스터.

▼ '중증외상센터'의 주요 장면들. 사진=넷플릭스

하얼빈 이번 주 450만 넘는다

23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 지켜 누적 425만298명…500만도 '무난'

현빈 주연작 영화 '하얼빈'이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 '하얼빈'이 15일 누적관객 수 425만298명을 기록,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23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을 세웠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얼빈'은 개봉 이후 단 하루도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이번 주 내 45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500만 고지 달성도 무난하리라고 예상된다.

우민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하얼빈'은 올해로 116주년을 맞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늙은 늑대를 처단하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하얼빈으로 향하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군과 이들을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을 그렸다. 배우 현빈은 안중근 의사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노성수 기자

◀ 영화 '하얼빈'의 한 장면. 사진=CJ ENM